
애순 할머니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염려 마세요.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애순 할머니를 위한 질문과 답변

1. 막연한 불안감 및 도움 요청 관련 질문

-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런데,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누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지시면, 나라에서 지정한 믿을 수 있는 공공후견인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돈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 등요.
- "제가 가진 돈이나 집 같은 거, 나중에 제가 아프면 누가 제대로 관리해 줄지 걱정돼요."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치매안심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후견인**'도 할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아프시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할머니의 돈과 집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 "지금이라도 뭔가 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할머니가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곳에서 할머니 상황에 맞춰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절차도 많이 도와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제가 복잡한 건 잘 모르는데, 쉽게 설명해주고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저희 같은 곳에서 할머니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말로 복잡한 제도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실 때는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신청 서류 작성이나 절차 안내 등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공공후견 제도 관련 질문 (특히 공공의 도움에 대한 관심)

- "나라에서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네, 바로 '**성년후견 제도**' 중에서도 '공공후견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랍니다. 할머니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나가기 위한 제도예요.

- "혹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사람이 제 돈이나 병원 가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믿을 만한가요?"
네,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공공후견인은 할머니의 재산 관리와 병원 진료 같은 신상 관련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활동하는 동안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어요.
- "그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제가 살아 있을 때부터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아파야만 도와주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이걸 '임의후견'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지금 건강하실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싶든지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거예요.
 2. 이미 아프셔서 스스로 결정을 하기 어려워지셨을 때 법원에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공후견 제도는 할머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후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자세한 건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비용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제가 가족이 없는데, 이런 후견인을 신청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하나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땐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그곳의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들이 할머니를 대신해서 신청 절차를 돕거나,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3. 치매 대비 자산 관리 (신탁 등) 관련 질문

- "제가 치매에 걸려도 제 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치매안심신탁*****이라는 제도가 바로 할머니처럼 치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은행에 할머니의 재산을 맡겨두면,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할머니 뜻대로 관리하고, 혹시 치매가 심해지더라도 은행이 정해진 규칙대로 할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안전하게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할머니 돈이 다른 데로 새거나 함부로 사용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신탁*****이라는 말이 어렵는데, 그게 제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할머니가 은행에 "나중에 내가 아프면 이 돈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미리 맡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은행이 할머니 약속대로 돈을 관리하고, 아프실 때도 할머니를 위해 그 돈을 써주는 거죠. 일반 예금과는 다르게, 할머니가 아프셔서 돈을 직접 찾기 어려워져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치매가 와도 제 돈을 누가 함부로 못 쓰게 막아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역할을 *****공공후견인*****과 *****치매안심신탁*****이 해줄 수 있어요. 공공후견인은 할머니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하고, 신탁은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약속대로만 돈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돈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 나중에 아파서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할머니가 가진 재산의 규모와 나중에 필요한 병원비, 요양원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할머니의 재산 상황을 말씀하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요양 시설 및 돌봄 서비스 관련 질문

-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데를 가야 할까요? 그런 곳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몸이 불편해지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이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으로 오셔서 돌봐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할머니에게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 "제가 아프면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나요? 그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네,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이 할머니 댁으로 오셔서 식사 준비, 청소, 목욕 도움, 간단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 "치매에 걸려도 제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지내시길 원하시고, 나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는 할머니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집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서비스(주거 환경 개선) 등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요양원이나 치매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곳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시설을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곳이 많습니다.)
 - **직접 방문해서 시설 분위기, 청결 상태,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다면 그곳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질문

- "제가 인터넷 검색은 잘 못하는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도 알려주나요?"
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분이 할머니께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 "복잡한 서류나 절차는 제가 혼자 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도와주는 곳은 없나요?"
네,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고, 작성하는 것을 돕거나,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할머니께서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애순 할머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제도와 사람들이 많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